



칼럼 김운호 논설위원 국회출입기자포럼회장

개인의 광복, 헌법 10조 시대, 모두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오전 10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경축식은 애국지사과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등 170명이 함께 '우리나라'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라며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6년 겨울, 전국 곳곳의 광장과 거리를 가득 채웠던 것은 헌법 10조의 정신이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촛불을 들어 다시 한 번 역사에 새겨놓았다'며 '그 정신이 우리 정부의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헌법 10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2005년 네 분의 강제징용 피해

자들이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195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로인한 일본 정부와의 갈등에 관하여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다. 동시에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 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는다'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생명 공동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라며 '방역 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로 남북의 국민들이 평화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가축 전염병과 코로나에 대응하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유례없는 집중호우를 겪으며

남과 북이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며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해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판문점 선언 합의대로 전쟁 위협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며 진정한 광복의 토대를 마련하겠다.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을 점검하고 실천하면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대문운동장은 해방의 환희와 남북단단의 아픔이 함께 깃든 곳이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개헌 전국환영대회'가 열렸고, 그날, 백범 김구 선생은 '전 민족이 단결해 자주·평등·행복의 신한국을 건설하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1949년 7월 5일, 100만 조객이 운집한 가운데 다시 이곳에서 우리 국민은 백범 선생을 눈물로 떠나보내야 했다. 분단으로 인한 미완의 광복을 통일 한반도로 완성하고자 했던 김구 선생의 꿈은 남겨진 모든 이들의 과제가 되었다.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다.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남과 북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남과 북의 국민이 안전하게 함께 잘살기 위해서이다. 경축사 마지막 부분이다.

나는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듣고 다시 경축사 전문을 꼼꼼히 읽어 보았다. 참으로 대단한 명문(名文)이다. 우리 사회, 우리 국민, 우리 나라, 우리 겨레가 처해 있는 상황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고도 올바르게 제시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되찾아야 할 광복의 새로운 의미, 개인의 광복,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개인을 위한 나라의 존재 이유,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일본과의 관계, 협력과 상생을 통한 평화와 공동번영의 통일 한반도의 실현 등 감동적인 최고의 진단과 최선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제 전쟁과 분단, 가난과 독재를 이겨내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원조 받는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을 이룬 우리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하는 일이 중요하다.

더욱 중요한 일은 공정과 정의, 촛불정신을 생명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범죄 혐의자인 조국이나 윤미향 같은 사람이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는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을 보고 국민들은 큰 실망과 큰 분노를 하고 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듯이 집값 폭등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

社 說

제8호 태풍 '바비' 대비에 철저해야

타이완 인근에서 발생한 제8호 태풍 '바비(BABI)'가 서해로 통과한다고 한다. 지난 7~8일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이재민과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는데 북구도 되기전에 태풍이 북상한다면 많은 대비가 요구된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바비는 오는 26일 오후 제주도 서쪽해상을 지나 밤에는 서해남부 해상으로 이동해 27일 오전 서해중부해상까지 북상한 후 오후에 북한 황해도 부근 연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됐던 바비의 진로는 서쪽으로 이동해 한반도 서쪽해상을 그대로 통과한다.

우리나라 남쪽 해상의 해수면 온도가 30도 내외로 매우 높아 태풍이 느린 이동속도로 고수온 해역을 통과하면서 세력 또한 매우 강해져 제주도와 전라해안에 최대 시속 216

k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 우리나라는 태풍의 위험반원인 오른쪽에 들게 되면서 태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24일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26일 오후부터 27일 최대 300mm 이상 많은 비가 오겠다. 전라도 지역은 최대 150mm의 비가 온다고 한다.

이번 태풍은 강수량 보다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열대전 집중호우 피해가 수습되기 전에 강한 태풍이 북상중이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이 비슷한 이동 경로로 북상하면서 강한 바람으로 많은 피해를 냈었다.

집중호우에 이어 추가 피해 발생하지 않게 모든 역할을 집중해 위험시설 사전 점검 등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알고을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 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번길 7
회 장 · 발 행 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권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small>등록번호 광주가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small>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해복구 온 국민이 동참해야

금년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나고 하천 제방이 무너지는 등 전 국토가 온통 수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귀중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 손실까지 입었다.

폭우가 지나간 도로는 곳곳이 끊기고 파여 통행 차량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됐다.

서둘러 보수공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도로 파임현상인 포트홀은 도로 위의 흉기로 둔갑한다.

도로 관리 당국과 지자체에서 보수를 했다지만 여전히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

특히 야간에는 도로 전방 주시카 제대로 안 돼 교통사고 위험도는 더욱 높다. 건축물을 지탱하고 있는 축대 또한 지반이 약해지면

서 붕괴 위험에 놓인 곳도 많다.

더욱이 관계기관에서 찾아가 진단, 보수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수해로 인해 위험에 처한 상황을 발견하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는 수해 복구에 온 국민이 동참해야 할 때이다. 정부에서도 장마 기간 가동했던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를 '복구지원본부'로 전환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주위를 둘러보면 지난 폭우로 수해를 당하지 않은 이웃이 없을

정도다. 자원봉사단체들이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에는 너와 내가 따로 없다.

우리는 예로부터 수재나 화재 등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서로 도와 왔다.

후회를 뒤에 남기지 않기 위해 서라도 지금이야말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와야 할 때이다.

이재복/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